

일개 도농복합시유자녀모성의추가출산 의지 관련요인

이무식^{1)*}, 나백주¹⁾, 김건엽²⁾, 홍지영¹⁾, 김철웅¹⁾, 김은영¹⁾, 김대경³⁾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¹⁾,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²⁾,
목원대학교 사회체육학과³⁾

The Related Factors of Willingness to Have an Additional Childbirth of Mother with Children in an Urban- Rural Area

Moo-Sik Lee¹⁾, Baek-Ju Na¹⁾, Keon-Yeop Kim,²⁾ Jee-Young Hong¹⁾,
Chul-Woung Kim¹⁾, Eun-Young Kim¹⁾, Dae-Kyung Kim³⁾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nyang University¹⁾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²⁾

Department of Social Physical Education, Mokwon University³⁾

= ABSTRACT =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how willingness to have an additional childbirth was related to mother'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various reasons for avoiding an additional childbirth.

Methods: By using organized questionnaire, we had face-to-face interviews with 722 mothers who had 12 to 36 months child in a urban-rural area of Chungcheongnam-do from 14 February to 19 February in 2005. Questionnaires included general characteristics composed of age, monthly income, number of children, major carers and mother's job status, and 6 reasons for avoiding an additional childbirth. We performed chi-square 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722 mothers, 66.5% had no willingness to have an additional childbirth. In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ld age of mother(95% CI of OR: 1.084-1.190), two or more children(95% CI of OR: 6.97-15.602) and weak norm about need for a child(95% CI of OR: 1.633-29.352) were independent related factors with willingness to have an additional childbirth.

Conclusions In our study, 2/3 women who already had children were appeared to have no willingness to have additional childbirth. Policies about family planning and controlling birth rate should be focused on eliminating barrier to additional childbirths.

Key words : Willingness to have additional childbirth, Related factors, Mother,
Low birth rate

* 교신저자: 이무식,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685번지, 전화: 042-600-6404, 팩스: 042-600-6401
E-mail: mslee@konyang.ac.kr

서 론

일정 수준의 출산은 사회의 생산인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저출산 사회란 일반적으로 한 사회가 일정시점의 인구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계출산율이 2.1 이하인 상태에 있는 사회를 말한다[1].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960년에 6.0명으로 경제적 수준에 비해 높았지만 1984년에는 2.1명[2], 2005년 현재 1.08명으로 일본(1.29), 미국(2.05), 프랑스(1.90)보다 낮으며 급속한 저출산 경향을 보여[3], 향후 국가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저출산 대비 정책의 필요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급속한 저출산은 노동생산성의 저하, 노령인구의 증가, 소비위축, 투자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와 생산가능인구의 노년부양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가족 자체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국가, 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전환되어 새로운 형태로 국가,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킨다[4, 5].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에 따른 결혼, 자녀, 성역할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6], 주 혼인 연령층인 20-30대 인구의 감소, 학업연장과 경제활동 등에 따른 혼인 지연과 출산 기피, 혼인건수의 감소,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의 여성 편중화와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 사교육비의 급등[7] 및 보육지원 체계의 미비[8] 등으로 인한 개인의 양육부담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9], 노동시장 및 생식보건 수준 등이 출산에 영향을 주는 원인들이었다. 이렇듯 출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양하며, 미혼에서 결혼, 결혼 후 첫 아기의 출산 및 추가출산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은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저출산과 관련된 많은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생애경로별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며[10], 특히 유자녀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추가출

산 의지와 관련요인을 살펴본 연구들은 찾을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개 농촌지역의 유자녀 여성을 대상으로 추가출산 기피와 관련된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추가 출산을 장려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2005년 2월 14일부터 2월 19일까지 6일간 충청남도 일개 도농복합시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 중 만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영유아를 자녀로 둔 72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 연구 방법

의과대학 재학생인 55명의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통하여 설문조사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교육하였다. 면담조사는 전문가 4명(예방의학 전문의 3명, 보건학 박사 1명)이 내용타당도를 분석, 검토하여 개발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조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대상 가정이 부재중이었거나 부적절한 답을 한 경우에는 재방문을 통하여 보완하였다.

3. 조사 도구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사회 인구학적 조사 변수로는 연령, 직업, 월 소득, 현재 자녀 수 등을 포함하였다. 모성연령은 20-24세, 25-29세, 30-34세 및 35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모성직업은 현재 직업의 유무를 사용하였는데, 농업의 경우 직업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고 가사인 경우에만 직업이 없는 것으로 하였다. 가계의 월 평균 소득을 100만원 미만, 100-199만원, 200-299만원 및 300만원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자녀수는 1명인 경우와 2명 이상의 경우로 분류하였다. 아이의 보육을 책임지는 사람

은 어머니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분류하였다.

추가출산 기피의 관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내용은 기존 연구들[1, 2, 7, 10]에서 추가출산과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진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자녀의 교육문제, 출산 후 육아문제, 직장문제, 경제문제, 출산 후 모성의 삶의 질, 건강 및 의학적 이유이었다.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은 ‘있어야 한다’와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항목으로 조사하였으며, 자녀의 교육문제, 출산 후 육아 문제, 직장문제, 경제문제, 출산 후 모성의 삶의 질, 건강 및 의학적 이유는 ‘추가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와 ‘추가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변수는 추가출산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4. 통계처리방법

통계 분석을 위해서는 SPSS 10.1판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자녀의 교육문제, 출산 후 육아문제, 경제문제, 출산 후 모성의 삶의 질, 건강 및 의학적 이유가 출산기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들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하고 추가출산 의사를 결과변수로 하는 다중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추가출산 의사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추가출산 의사가 있는 경우는 242명(33.5%), 추가출산 의사가 없는 경우는 480명(66.5%)이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추가출산 기피 정도가 높아져서 20-24세의 여성은 39.4%, 25-29세 여성은 48.7%, 30-34세 여성은 70.9%, 35세 이상 여성은 82.9%에서 추가출산 의사가 없는 것으로

Table 1. Distribution of willingness to have additional childbirth of women by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person(%)

	Willingness to have additional childbirth			p-value
	Total	Yes	No	
Age (years)				
20-24	33(4.6)	20(60.6)	13(39.4)	<.001
25-29	189(26.2)	97(51.3)	92(48.7)	
30-34	330(45.7)	96(29.1)	234(70.9)	
35≤	170(23.5)	29(17.1)	141(82.9)	
Income per month (10,000 Won)				
≤ 99	37(5.1)	14(37.8)	23(62.2)	.558
100-199	258(35.7)	92(35.7)	166(64.3)	
200-299	220(30.5)	66(30.0)	154(70.0)	
300≤	207(28.7)	70(33.8)	137(66.2)	
Number of children				
1	197(27.3)	143(72.6)	54(27.4)	<.001
2≤	525(72.7)	99(18.9)	426(81.1)	
Main carer of children				
Other	120(16.6)	45(37.5)	75(62.5)	.312
Mother	602(83.4)	197(32.7)	405(67.3)	
Occupational status of mother				
No	542(75.1)	179(33.0)	363(67.0)	.627
Yes	180(24.9)	63(35.0)	117(65.0)	
Total	722(100.0)	242(33.5)	480(66.5)	

4 일개 도농복합시 유자녀 모성의 추가출산 의지 관련요인

조사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p<0.001$). 현재 자녀수에 따라 분석한 결과 1명의 자녀를 가진 경우는 27.4%,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는 81.1%에서 추가출산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반면 월 평균 소득, 주된 양육자가 자녀의 어머니인지 여부 및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추가출산 의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추가출산 기피 이유와 관련된 요인에 따른 추가출산 의사를 파악한 결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경우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65.9%,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86.4%에서 추가출산 의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직장생활에 따른 부담의 경우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 52.8%, ‘있다’라

고 응답한 경우는 67.2%에서 추가출산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자녀의 교육문제, 보육문제, 경제문제, 개인의 삶의 질 및 개인의 건강문제에 따라서는 추가출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추가출산 의지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연령이 증가할수록(OR의 95% 신뢰구간: 1.084-1.190), 현재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경우(OR의 95% 신뢰구간: 6.97-15.602), 자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OR의 95% 신뢰구간: 1.633-29.352) 추가출산 기피와 관련된 유의한 변수로 도출되었다(Table 3).

고 찰

최근 급격한 출산율 감소는 경제적 기반인

Table 2. willingness to have additional childbirth of women according to cause of avoiding additional childbirth
Unit: person(%)

Cause of avoiding additional childbirth	Willingness to have additional childbirth			p-value
	Total	Yes	No	
Need of child				
No	22(3.0)	3(13.6)	19(86.4)	.045
Yes	700(97.0)	239(34.1)	461(65.9)	
Burden of child education				
No	56(7.8)	20(35.7)	36(64.3)	.717
Yes	666(92.2)	222(33.3)	444(66.7)	
Buren of bring up				
No	60(8.3)	23(38.3)	37(61.7)	.409
Yes	662(91.7)	219(33.1)	443(66.9)	
Burden of job activity				
No	36(5.0)	17(47.2)	19(52.8)	.074
Yes	686(95.0)	225(32.8)	461(67.2)	
Burden of economy				
No	58(8.0)	18(31.0)	40(69.0)	.676
Yes	664(92.0)	224(33.7)	440(66.3)	
Burden of personal quality of life				
No	186(25.8)	68(36.6)	118(63.4)	.308
Yes	536(74.2)	174(32.5)	362(67.5)	
Burden of personal health problems				
No	265(36.7)	95(35.8)	170(64.2)	.312
Yes	457(63.3)	147(32.2)	310(67.8)	
Total	722(100.0)	242(33.5)	480(66.5)	

Table 3. Multiple logistic analysis on willingness to have additional childbirth of women

Variables	Exp(B)	CI of 95.0%	
		lower limit	Upper limit
Age of mother	1.136	1.084	1.190
Income per month	1.009	0.939	1.083
Number of children	1		
1	1		
2≤	10.428	6.970	15.602
Main carer of children			
Other	1		
Mother	0.835	0.434	1.604
Occupational status of mother			
No	1		
Yes	0.824	0.468	1.452
Need of child			
Yes	1		
No	6.923	1.633	29.352
Burden of child education			
No	1		
Yes	1.066	0.460	2.471
Buren of bring up			
No	1		
Yes	1.430	0.666	3.069
Burden of job activity			
No	1		
Yes	1.276	0.498	3.273
Burden of economy			
No	1		
yes	0.620	0.282	1.363
Burden of personal quality of life			
No	1		
Yes	1.034	0.637	1.678
Burden of personal health problems			
No	1		
Yes	0.980	0.637	1.507

노동인구의 감소와 함께 경제성장의 둔화 및 급격한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현재 유아 및 어린이들이 미래사회에서 겪어질 사회경제적 부담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저출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추가출산 기피에 대한 다양한 관련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저출산 대비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응답자들의 특성에 따른 추가 출산의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33.5%는 추가 출산을 원한

반면 66.5%에서 추가 출산을 원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가 이미 자녀를 가지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미혼 여성을 포함한 가임기 연령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면 추가출산 의사가 있는 경우는 이보다 높아질 것이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추가출산 기피 의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추가출산 기피의 위험요인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고령출산에 대한 위험으로 인한 추가출산의 기피, 결혼연령이 늦춰짐에 따라 1가족 1자녀인 가정이 늘어난

경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령 출산은 산전관리와 산후관리가 적절히 시행된다면 모성이나 신생아의 건강에 큰 위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모성건강과 신생아건강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고령산모의 관리체계를 갖춘다면 출산율을 높이는데 일정 수준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초혼연령이 1990년 남자 27.8세, 여자 24.8세에서 2002년 남자 29.8세, 여자 27.0세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초혼연령의 상승 또한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며[11], 향후 연구에서는 초혼연령에 따른 추가출산 의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하겠다.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경우, 자녀를 1명 가진 경우보다 높은 추가출산 기피율을 보여 현재 3자녀의 경우 지원되는 보조금의 규모와 보육환경의 열악함이 3자녀 이상의 추가 출산을 위한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낮은 출산율을 높이고자 무조건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정책보다는 경제적 측면, 부모의 직장생활 유지 측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같은 보육자원 공급 측면에서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월 소득수준이 추가출산 기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경제적 수준이 출산의 연기나 기피와 관련될 것이라는 의견과 일치되지 않는 결과였다. 오히려 고소득일수록 추가출산 기피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고소득 계층 표본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어머니가 육아를 주로 담당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추가출산 기피율이 높게 조사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추가출산 기피율이 오히려 낮게 나왔다. 여성취업률이 높으면서 출산율도 비교적 높은 북유럽 국가의 예에서, 그리고 여

성의 취업과 출산율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보고한 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12, 13] 여성의 취업 자체가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을 가진 여성의 추가출산 기피율이 더 적고, 직업 여부와 추가출산 기피기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직장으로 인한 부담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추가출산을 기피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직장생활의 문제는 교육비 부담과 육아문제와 연관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문제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14]. 자녀 양육비에 대한 세제 감면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산전·후 휴가의 정착 및 접근도 제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15], 육아 휴직제도의 확대와 내실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3]. 향후에는 직업유무와 추가 출산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 하겠다.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에서는 자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97.0%로 나타나 기존 연구결과인 58.1%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16]. 이는 응답자들이 자녀를 둔 여성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기혼여성이 포함된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나며, 본 연구의 경우 조사지역이 도농복합시 지역으로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17]. 자녀의 필요성을 낮게 또는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86.4%,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는 65.9%에서 추가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비록 이미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응답자이지만 이는 현재 고령출산에 대한 부담, 결혼연령의 고령화, 양육부담 및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자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부부가 늘어가고 있는 사회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출산으로 인한 육아부담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 등의 출산 저해요인을 밝혀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 결과 추가출산 기피에 영향을 주는 관

련요인은 모성 연령, 현재 자녀의 수 및 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이었다. 이는 1960년대부터 1990년 초반까지 우리나라 출산력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18]에서 출산 결정의 요인으로 연령, 초혼연령, 피임사용 등 인구생물학적 변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대신 교육수준, 소득, 거주지역 등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본 조사는 농촌지역 유자녀 가임 여성의 추가 출산의지 관련요인에 대한 기초 조사로써, 다양한 요인과 이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제안을 하기에 제한점이 있지만, 고령여성들을 대상으로 고령출산에 대한 교육 및 관리체계 마련, 유자녀 모성들을 대상으로 한 자녀관 등 가치관 조사 및 대책 마련, 여성들의 직장생활에 따른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개 농촌지역의 유자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미혼여성 등 가임기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요 약

본 연구는 일개 농촌지역 유자녀 여성을 대상으로 추가출산 기피 정도와 관련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추가 출산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 2월 14일부터 2월 19일까지 충청남도 일개 도농복합시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 중 만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영유아를 자녀로 둔 7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사회인구학적 조사 변수로 연령, 직업, 월소득, 현재 자녀수 등을 포함하였으며, 추가출산 기피의 관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자녀에 대한 교육부담, 육아문제, 직장문제, 경제문제, 출산 후 모성의 개인적 삶의 질, 건강 및

의학적 이유가 추가출산 기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추가출산 의사가 있는 경우는 242명(33.5%)이었고, 추가출산 의사가 없는 경우는 480명(66.5%)이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추가출산 기피 정도가 높아져서 20-24세의 여성은 39.4%, 25-29세 여성은 48.7%, 30-34세 여성은 70.9%, 35세 이상 여성은 82.9%에서 추가출산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1$). 현재 자녀수에 따라 분석한 결과 1명의 자녀를 가진 경우는 27.4%,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는 81.1%에서 추가출산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1$).

2.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경우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65.9%,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86.4%에서 추가출산 의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직장생활에 따른 부담의 경우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 52.8%,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67.2%에서 추가출산 의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3. 추가출산 의사의 유무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어머니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현재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경우가 1명인 경우보다, 자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추가출산 기피와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이었다.

참고문헌

1. Sohn HS. A study on the necessary family support services required to solve the low birth rate. *Korean J Family Welfare* 2005; 10(1): 43-63
2. 장영식, 김승권. 출산력과 관련된 제변수의 고찰, 한국의 출산력 변동과 가족계획 사업 방향.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3. 통계청. 2005년 출생통계 잠정결과. 2006
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8 일개 도농복합시 유자녀 모성의 추가출산 의지 관련요인

5. 안명옥. 저출산 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대한가정의학회 제57차 추계학술대회, 2005

6.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Welfares.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survey report 2000, 2001 (Korean)

7. Huh KO. Household expenditures on childrearing: from the birth to 18 tears old. *Journal of Consumer Studies* 1997; 8(2): 1-19 (Korean).

8.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실천전략. 2004

9. 통계청. 2004년 7월 고용동향. 2004

10. Lee SS, Shi IC, Cho NH, Kim HK, Chung YS, Choi EY, Hwang NM, S대 MH, Park SK, Chon KH, Kim JS, Park SM, Yun HS, Lee SY, Lee IJ. Cause of 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s".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Republic of Korea 2005(Korean)

11. 통계청. 2002 인구동태통계연보. 2003

12. Hoem B, Hoem J. M. The impact of

women's employment on second and third births in Sweden. *Population Study* 1989; 43: 47-67

13. Dewit M, Ravanera Z. The changing impact of women's educational attainment on the timing of Canada. *Canadian Studies in Population* 1998; 25: 45-67

14. 한국여성개발원. 2002. 지역 여성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추진전략. 2002

15. Hofferth S. L., Deich S. G. Recent US child care and family legisl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Issue* 1994; 15: 424-448

16. 김승권. 한국사회의 출산율 추락과 향후과제. *Welhealth Research* 2003; 6: 1-17

17. Henry SS., Jacob SS. The Methods and Materials of Demography. Academic Press 1976 (Korean)

18. 조대회, 김유경. 최근의 출산력 변동요인과 인구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